

등급란 통한 제품 차별화로 수익성 증가

계림농장 - 홍성학 대표

대전충남지원 과장대리 이영철



홍성학 대표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위치한 계림농장은 2009년 10월 5일부터 등급판정을 시작하였다. 기본과 정직을 바탕으로 최고의 사양기술과 연구개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등급란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제품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불어 수익성도 증가하고 있다.

계림농장은 사육을 통한 계란생산, 농가용 맞춤사료인 포엠사료(OEM), 난가공, 계란유통, 유기질비료 등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 산란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옥천농장’ 운영과 ‘등급란’ 시작으로 수익성 증가

계림농장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등급판정결과 1*등급 출현율이 74.2%이며, 1등급 출현율이 23.9%이다. 지난해 무창전문 중추농장인 7만수 규모의 옥천농장을 인수하여 자체 사육 뿐만 아니라 위탁사육도 가능하며 위탁사육 하려는 농가에게도 병아리 품질과 일령, 관리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해 준다. 계림농장은 현재 2개동 무창계사에 12만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금년에 무창계사 1개동을 추가로 건립해 20만수 내외의 산란계를 사육할 예정이다. 계림농장은 1일 3만개 정도의 등급란을 생산해 학교, 대형 급식소, 식자재 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롯데마트 등 대형매장과 삼성에버랜드, 단체급식소 등에 직접유통하고 있다.

그로 인해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일반란의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 계사 1개동을 추가로 건립을 추진하고있다. 그런데 방학시기에는 등급란 납품이 줄어 다른 납품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나 등급란에 대한 차별성이 적극적으로 홍보된다면 등급란의 품질 및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어 수익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홍성학 대표는 강조했다.

자체 생산하는 포엠사료는 생산과 직결

홍 대표는 축산학을 전공한 이후 사료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양계산업에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농가용 맞춤사료인 ‘포엠사료(OEM)’는 농장의 특성에 알맞게 배합비가 설계되어 있으며 유통마진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 농가용 맞춤사료를 통해 농장 및 품종간의 특성, 육성 및 사양관리, 생산물의 목적에 맞추어 영양소 함량과 생산하고자 하는 특성화된 제품에 맞는 첨가물을 보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산비 절감은 물론 차별화된 양계산물을 생산해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글을 마치며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홍 대표는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맞춘 차별화된 계란생산과 향후 농가가 가야할 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산란업을 선도하는 개척자로 우리나라 양계업 발전에 일조할 것을 기대해 본다.